

■ 발행일: 2026년 08월 31일 ■ 전화: (033)730-7871 ■ 발행인: 금속노조 만도지부 원주지회장 김택수

더 이상 시간 끌지 마라! 임·단협에 성실히 임하고 회사안을 즉각 제시하라!

■ 7차 교섭까지 왔다! 이제는 회사가 답하라!

지난 7월 8일 노동조합이 요구안을 제시한 이후 노동조합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다. 그러나 임단협 교섭이 7차까지 진행됐음에도 회사는 아직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회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요구안 제시 후 벌써 50여 일이 지나고 있다. 이제는 회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답해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끌며 교섭을 지연시키지 말고,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회사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 노경저널 통한 왜곡된 홍보, 이것이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인가?

회사는 노경저널을 통해 마치 노동조합이 이번 중대재해 사고를 빌미로 이용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산보위와 임·단협은 분명히 별개의 사안이다. 이를 교묘하게 연결해 노동조합을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결국 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산보위는 산보위대로, 임·단협은 임·단협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왜곡된 여론전이 아니라 성실한 교섭과 책임 있는 회사의 답변이다. 산업안전과 재발방지는 산보위에서 책임 있게 논의하고, 임금과 단체협약은 임·단협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서로 다른 사안을 억지로 엮어 교섭을 지연시키거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더 이상 교섭을 지연하지 말고 구체적인 회사안을 제시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단협 교섭에 나서야 한다!

노조를 타하기 전에 현장을 돌아보라!

지난 10여 년간 회사는 크게 성장했지만 현장의 인력과 안전 여건은 오히려 악화됐다. 2012년 약 2,260명이었던 현장 인력은 2026년 약 1,200명 수준으로 줄어 약 50% 가까이 감소했다. 더욱이 2012년 신규채용 이후 14년째 신규채용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회사 매출은 2012년 약 5조 원에서 2026년 약 9조 6천억 원으로 약 90% 이상 성장했다.

현장 인력은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회사 매출은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그 성장을 누가 감당해 왔는지 회사는 현장을 돌아봐야 한다.

■ 회사의 성장은 현장의 희생 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지금 회사가 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을 타하는 것이 아니다. 인력 부족과 높아진 노동강도 속에서 위험작업의 2인 1조 원칙은 지켜졌는지, 작업방법과 안전절차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안전관리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사고의 책임을 개인이나 현장에만 돌려서는 안 된다. 인력·작업환경·노동강도·안전관리체계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생산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이 더 이상 위험에 내몰리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 왜곡과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성실교섭에 나서라!

노동조합은故 김승모 노동자의 죽음을 결코 교섭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중대재해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지 말고, 사고와 임·단협을 악의적으로 엮지 마라! 노동조합을 희생양으로 삼는 왜곡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

회사는 책임 회피와 왜곡된 여론전을 멈추고, 더 이상 시간 끌기로 교섭을 지연시키지 말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책임 있는 회사안을 제시하고 임·단협 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 2026 임·단협 교섭 일정 ■

9월1일(화): 8차 임금교섭. 8차 단협교섭

■ HL만도 고 김승모 중대재해 관련 청와대 면담 ■

일 시	2026년 9월 2일(수) 10시 30분
장 소	청와대 연풍문(연풍관)
참석자	청와대 사회수석, 노동비서관, 고 김승모 대책위